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4/21~2025/04/27]

2025.04.28

[로봇] 시범 양산 라인을 돌려보는 테슬라

- 중국 휴머노이드 ETF까지, 올해만 로봇 ETF 5개 신규 상장. 대다수는 글로벌 ETF
- 중국 휴머노이드 6곳(유니트리, 유비텍, 애지봇, 갤봇, 중칭, 러주), 1,000대 이상 양산 계획
- 관세 영향으로 화낙 25년 가이던스 미제시. 공작기계도 8개월 연속 (+) 지만 불확실성 상존

[방산] 미국 방산 1Q25 실적

- 크랩에 한국산 엔진 채용. 방사청장의 對 NATO 공급망 세일즈. 언젠가 빛을 볼 방산부품
- 사우디에 1,000억달러 규모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미국 F-35, C-130, 각종 미사일 등
- 힌트를 주는 빅텍의 수주 공시. K-2 폴란드 2차 부품 수주에, L-SAM 양산까지

[항공] 회물과 여객 모두 불확실성 고조

- FSC에 이어 LCC들도 5월 유류할증료 인하. 연휴 시즌에 운임 부담 완화로 수요 촉진 기대
- 미 항공사들의 심각해보이는 수요 부진 이슈. 관세와 강화된 출입국 정책 여파
- 중국 항공사들 미국 항공기 수령 거부. 보잉은 거부된 항공기를 다른 나라에 재분배

[조선] USTR에 이어, 이번에는 Ships Act?

- 이어지는 상선 발주 흐름. 한화오션 VLCC, 미포 컨선, 현중과 삼중의 컨선
- KDDX 사업자 선정은 결국 또 지연. 사업추진방안 점검 후 분과위 재상정. 장기화 전망
- 이번 주, 미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장남 방한. 그리고 5월 1일 Ship Act 관련 토론회 개최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우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등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등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적·복제·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 자료는 당시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등 자료는 당시의 등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와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0)

[시범 양산 라인을 돌려보는 테슬라]

- 지난 주, 테슬라가 미국 프레몬트 공장 내 옵티머스 파일럿 양산 라인을 공개함. 10여대가 시범 생산되고 있었음. 시범적이지만 분업 및 양산 공정 형태를 갖춘 점 인상적. 이 외, Gen 2 모델에서 약간 변화된 모습도 확인 가능. 어깨 조인트 및 팔 부분이 변경됨. Gen 3 핸드 및 양산 구조 채택한 것으로 추정.
- 1Q25 테슬라 어닝콜에서 올해 말까지 Tesla 공장에서 수천 대의 Optimus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빠르면 4년 안에 달성을 수도 있다고 언급. 현재는 아직 대량 양산 단계는 아님. 모터, 기어박스, 전자 장치, 액추에이터 등 기존 공급망이 없음. 거의 모든 부품은 새롭게 개발. 대략 만 가지의 고유 부품 필요. 복잡한 공급망 문제와 중국의 영구 자석 수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Key Chart: 테슬라 옵티머스 시범 양산 라인



자료: 언론보도

Weekly Keyword

시범 양산 라인을 돌려보는 테슬라

테슬라가 2월 프레몬트 공장 옵티머스 양산 위한 채용 시작한지 2 달여만에 시범 양산 라인 공개. 연말까지 수천대 양산 예정. 그리고 빠르면 5년 이내 100만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4/21~04/27)

[산업용 로봇]

- 뉴로메카, AI기반 '2세대 협동로봇' 공개
- 두산로보틱스, 로봇·AI 우수 전문인력 공개채용

[서비스 로봇]

- CJ대한통운, 양팔로봇 등 첨단기술 물류서비스 선보여
- 브이디컴퍼니, 청소로봇 전담조직 신설

[기타(정책/부품/SW)]

- K-휴머노이드 연합, 세부 내용 결정 등 후속 대응 더뎌
- 원익로보틱스, IBM·메타 주도 'AI 드림팀' 합류
- 삼성자산,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출시 계획

[Global]

- 머스크 "中 회토류 통제로 휴머노이드 생산 차질"
- 美 카트肯, 실내외 자재 운반용 AMR 출시
- 샤오팡, 상하이 오토쇼에 휴머노이드 아이론 공개
- 中 로봇 마라톤 이어 8개 종목 올림픽 개최
- 中 유니트리 로보틱스, 항저우 신공장 가동
- 올해 中휴머노이드 로봇 수천대 양산. 1조원 생산
- 中 유니트리, "로봇, 아직 충분히 지능적이지 않다"
- 中 치에톰, 베이징에 초대형 감속기 공장 건설
- 中 링커봇, 고성능 로봇 핸드 개발. 경쟁사 1/20 가격
- 유니버설로봇, 일본에 첫 제품 수리 시설 설립
- ABB, 로봇사업부 100% 분사 'ABB로보틱스' 설립 추진
- 일본 이시바총리, "로봇 분야 생성 AI 개발 가속"
- 화낙, 25년 실적 전망치 미제시. 미국 관세 영향 등
- 3월 공작기계 수주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28)

[미국 방산 1Q25 실적]

- 미국 방산 기업들의 1Q 25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 상회. 컨퍼런스 콜에서는 미 관세 부과 영향에 대한 우려 팽배. 기업들도 비용 증가 가능성 언급. 그 외 유럽 보호주의 확대에도 견조한 미국 무기 수요 확인

Key Chart: 주요 기업 실적 내용

구분	내용
록히드 마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180억달러(+4%yoY), EPS 7.28달러. 컨센서스 6.34달러 상회. 연간 가이던스 유지 항공 +3%yoY(F-35 생산 증가), MFC +13%yoY(HIMARS 등 판매량 증가), RMS +6%yoY(캐나다 함정, 블랙호크 판매), 우주 -2%yoY(정부 ↓ 민간) PrSAM, THAAD 등 미사일 관련 대규모 수주. 항공은 싱가포르 F-35 추가 구매, NGAD 실주. F-35 업그레이드해서 6세대급 80% 성능을 50%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공급망 불안정은 리스크
제네럴 다이나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122억달러(+14%yoY), EPS 3.66달러. 컨센서스(3.45달러) 상회. 연간 가이던스 유지 항공우주 +45%yoY(G700 인도 증가), 전투시스템 +4%yoY(유럽 수요 강세, 미국 탄약 생산 증강 속도, 에이브람스 현대화 가속), 해양 +8%yoY(매출 증가에도 공급망 및 인력 문제 지속) 항공 분야 공급망 문제는 지속 개선 중. 정부의 조선 지원 정책도 긍정적 평가. 유럽 전투 장비 수요 견조할 것.
RT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203억달러(+8%yoY), EPS 1.47달러. 컨센서스(1.35달러) 상회. 연간 가이던스 유지 콜린스 +9%yoY(AM, 방위 부문 성장, 공급망 개선), P&W +14%yoY(AM 매출 증가), 레이시온 +2%yoY(무기 판매 견조) 관세 이슈로 최대 8.5억불 비용 발생 가능성. LTAMDS(패트리어트 신규 레이더) 개발 완료 후 저율 초기생산 진입. 유럽 견조한 수요는 기회. P&W GFT 어드밴티지 FAA 인증도 고무적(비행시간 두배).

자료: 각 사

Weekly Keyword

미국 방산 1Q25 실적

미국 주요 방산 기업 실적 발표 완료. 1Q25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좋은 분위기. 다만, 미국 관세 부과 영향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는 확대되는 중. 유럽 등 주요국 무기 수요는 여전히 좋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방산 주요 뉴스(04/21~04/27)

[수주/계약]

- 대한항공 LIG넥스원, 1조원 UH-60 성능개량 사업 수주
 - 빅텍, 한화시스템과 L-SAM MFR 초도양산 계약 체결
 - 폴란드 크랍 자주포, 독일산 대신 한국산 엔진 탑재
 - 페루, 전투기 사업 KF-21 제외? 韓 정부 공정 경쟁 촉구
 - 슬로바키아 FA-50 수출에 체코 L-39 경쟁
 - 이집트, FA-50 최대 100대 도입 계약 마무리 단계

[기업별 이슈]

- LIG넥스원, 해양 감시·정찰용 수중 글라이더 개발 추진
 - KAI, 이라크 방산전시회 참가. 수리온 추가 수주 기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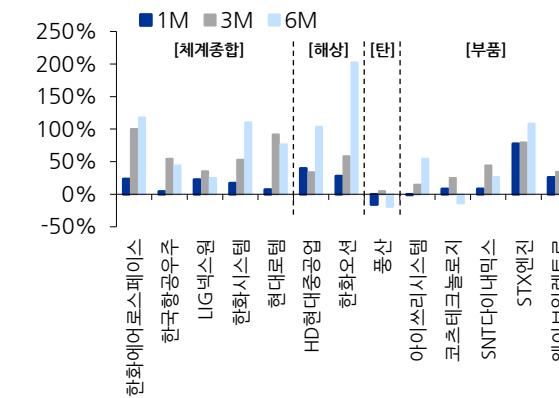
- 최상목 부총리,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방산수출 등 논의
 - 방사청장, EU·나토 방문. 한·나토 방산협의체 개설 제안도
 - 민주 “조선·철강·방산도 ‘전략산업’ 지정 방안 검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조원 규모 유상증자 연기
 - 425사업 네번째 정찰위성 성공 발사. 연내 5호기 발사
 - 中, 한국에 희토류 사용 제품 美 방산업체 수출 금지령
 - 전력화 10년된 천무 유도탄, 수명연장사업 추진

글로벌

- 英, 포탄 자체생산 16배로 확대. 美 의존 탈피
 - 스페인, 25년 국방예산 GDP 대비 2%로 증액
 - 우크라-미/영/독/불 고위급 회담, 정전 입찰 격차
 - 트럼프, 사우디에 천억달러 무기판매 계획. F-35 등
 - 日, 'K-방산 텃밭' 인도네시아에 통합막료장 파견
 -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충기테러 갈등 확대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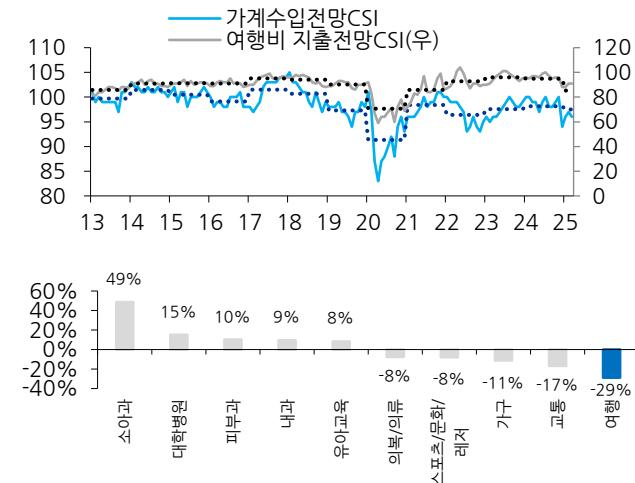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8)

화물과 여객 모두 불확실성 고조

-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항공 화물 시황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 참고로 해운 부문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컨테이너선 예약 급감하고 블랭크 세일링 증가, 임시 결항 확대 등 불확실성 최고조
- 여객 부문에서도 침체 기조 감지되며, 이중고. 여행비 지출 전망 CSI가 전년비 크게 하락한 모습이며, 3월 카드 결제액 또한 여행 업종 소비가 전년비 29% 하락했다는 보도. 5월 초 가정의 달 연휴에 수요 흐름 개선 기대하나, 5월 2일 임시 공휴일 무산은 약간의 노이즈

Key Chart: 여행 소비 심리 변화 및 3월 카드 결제액 변화



자료: 통계청, 한국경제,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화물과 여객 모두 불확실성 고조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항공 화물 시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객 수요도 침체 기조. 수요 심리 악화되고 3월 여행 업종 카드 결제액도 감소. 5월 초 연휴 효과로 반등 가능할지 주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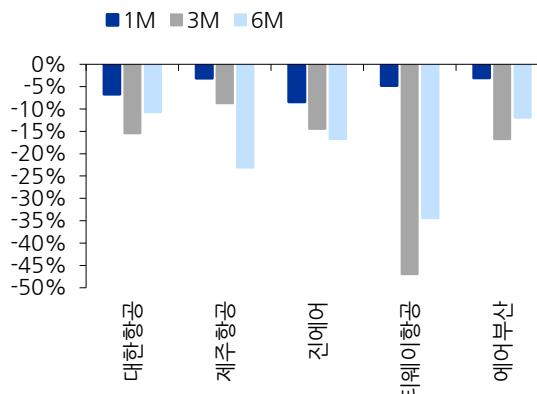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4/21~04/27)

여객/화물

- 제주항공, 6월 인천-하코다테 주 2회 취항 계획
- 저비용항공사들도 오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인하
- 버진애틀랜틱, 2026년 3월부터 인천-런던 매일 운항
- 우즈벡 카녹샤크 항공, 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폴란드행 하늘길 '오리무중'. 운수권 반납은 '유예'
- 대명소노 인수후 티웨이 대구 노선 축소 움직임
- 에어부산, 올해 1분기 영업익 402억. 전년比 43.4%↓
- 에어프레미아, '정비사·운항관리사' 공개 채용

기타

- 한총리 "미국 항공기 구매 의향" 발언에 항공사 당황
- 국토부 장관 "보조 배터리 비닐 정책, 재검토"

글로벌

- 美 항공사들, 여행수요 감소에 실적 전망 악화 철회
- 사우스웨스트항공 CEO "미국 항공업계는 이미 침체"
- 보잉 1Q25 매출 전년비 18% 증가. 생산 회복세
- 보잉, 中 항공사 반품에 항공기 50대 주문 재분배 검토
- 중국이 인수 거부 보잉 항공기, 인도 항공사가 구매 '눈독'
- 中, 보잉 항공기 부품 수입 중단. 하늘길 45% 운항 차질
- 대만, 민간항공에 SAF 첫 주입. 30년 5% 목표 권고
- 7월에 日 대지진 소문에 항공편 감축까지
- 에어버스, 17억 달러 투입한 수소 항공기 개발 10년 연기
- 사우디아, 에어버스 A330 20대 신규 발주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

[USTR에 이어, 이번에는 Ships Act?]

- SHIPS Act 발의자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이 5월 1일(미국 10AM ET)에 미국 조선업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 예정. SHIPS Act는 작년 12월 19일 발의된 법안(이후 철회). 미국적 선박 80척 밖에 안되고, 조선 기반도 부족. 상선은 전시에도 중요한 존재. 국가차원 경쟁력 확보 추진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바 있음. 국내 조선업 수혜 기대감 존재 하나, 여전히 존스법과의 상충 문제도 해결 필요. 이외 4월 30일 미국 해군성 장관 및 트럼프 주니어가 울산/거제 방문 예정. 1Q25 조선 업체들 호실적 이후 미국발 주가 모멘텀 계속됨

Key Chart: 작년 발의된 Ships Act 주요 내용

구분	내용
Ship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 내 해양안보위원회 신설 ■ 해사 안전 트러스트 펀드 조성하여 각종 지원책의 재원으로 활용 ■ 전략상선단(SCF) 미국 국적 선박 250척 10년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선종은 벌크선, 유조선, 로로선, 컨테이너선, LNG선박 등 *법 발효 후 2년 후 매년 10척 이상, 5년 후 20척 이상 선정 *미국 건조 요건. 외국 건조 선박은 2029년 10월까지 참여 가능 *7년 계약. 갱신 통해 21년까지 연장 가능 ■ 미국 조선소 건조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건조 재정원조: 25~34년 연 2.5억불, 소형 조선소 연 1억불 *연방 선박 금융 프로그램: 초기 기금 1억 달러 제공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내 일정 조선소 시설 투자금의 25% 세액 공제 적용 *미국 선박 외국 수리 시 부과되는 수리비 50% 세금 면제 조항

자료: US Senate

Weekly Keyword

USTR에 이어, 이번에는 SHIPS ACT?

USTR에 이어, 지난 해 발의되었던 Ships Act 재개 움직임. 이번 주 5월 1일 관련하여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 한국 수혜 기대감 존재하나, 아직 해결해야 할 포인트는 많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4/21~04/27)

[상선/해양]

- 한화오션, 어드밴티지 텡커스 VLCC 2척 수주
- 완하이, HD현대重/삼성重에 메탄올 추진 컨선 4척 발주
- HD현대미포, 1,593억원 규모 컨선 2척 공사 수주
- HD현대, 유럽發 수에즈막스 텡커 8척 수주 가시화
- 美, 알래스카 개발 '쇄빙선' 한국 대신 핀란드 고려
- Eni, 모잠비크 Coral North FLNG 관련 2건 입찰 개시
- 브라질 P86 FPSO 6월 입찰 마감. 한화오션 등 경합
- 일본 MODEC, 가이아나 Hammerhead FPSO 계약 확보

[특수선]

- 8조원 규모 KDDX 사업자 선정 또 지연
- 미 해군성 장관 및 트럼프 장남, 韓조선소 방문 가능성
- HD현대중공업, 美 헌팅턴 잉글스 조선소 방문
- HD현대중공업, 페루와 15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 합의
- HD현대重,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 사업 수주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이트 개설. 전방위 수주 홍보전
- 獨伊 연합 비 잠수함 출사표. 한화도 오스탈과 수주 총력

[기타]

- 한화, 필리조선소 확장해 미 해군함 건조 역량 강화 추진
-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LNG 운반선 건조할 전망
- 삼성중공업, 해양부유식 소형모듈원전 상표 FSMR 출원
- 북, 5천 톤급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

[글로벌]

- 미 내무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인허가 가속화 예정
- MSC 22,000 TEU 컨테이너선 중국에 6척 발주